

관리직 여성공무원과의 오찬

여성의 경제 참여기회확대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대개 여성부랑 조율을 해서 역할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한 말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얘기할 수도, 사회적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전의 앞뒤와도 같습니다. 아이 나아서 맡길 때가 있어야 이제 마음 놓고 사회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되면 여기저기에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도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비관세 장벽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쪽으로는 역차별 제도를 만들어 풀고 한쪽으로는 문화적 도전을 통해 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인식은 변해야 합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현재의 47%수준에서 55%까지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 1%정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5.2%로 보고 있는데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해 40만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대개 1%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

는 정책을 세워보니까 1%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국방예산 2.7%를 3.2%로 올려달라는데 1% 그거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여성 힘에 의존해야 할 시대에 와있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최대의 발목 잡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육인데,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합니다. 장벽을 없애는 것,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려고 합니다. 여성 장관 세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서 여러분들과 여성부 여성장관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것들 발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 전 아래층에서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공무원 인사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려 합니다. 중요한 과제로 여성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엇그제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가서 보고 언뜻 느낌에 여성 숫자 왜 적으냐고 물었더니 정책실장이 노력했는데 우선 여성 값이 금값이 돼서 우선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이 한 두 개씩 맡아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 관념을 바꿔서 위원회 참여를 실무적인 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드린 셈입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성장률을 1%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연도는 2007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문제는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새 될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마 제가 의욕을 많이 부리나 봅니다. ‘그 일이 될까’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노무현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변화의 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단언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 포함해 우리 전체의식과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게 제 복안입니다.

30년 동안 중앙으로의 집중이 계속된 나라를 다시 환류 시켜야 합니다. 자본과 사람 권한을 지방으로 환류 시켜서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냐, 되겠냐.’ 하는데 됩니다. 행정수도가 가고 막다른 골목에 다 달았기 때문에 됩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많은 부분 희생시키면서 할 게 아니라 상승작용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생산성 높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문화개조도 아울러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맘먹고 밀어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장관도 더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옳다는 것은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꼭 해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 훨씬 소수였습니다. 90년도 합당 반대하고 혼자 남았을 때도 그러면 정치는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산으로 갔는데 떨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에 와서 최고위원까지 됐습니다. 부산시장 떨어지고 오니까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옳다는 것은 함께 계속 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극히 이례적 대통령이 된 것은 그저 우연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흐름변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이나 역전했습니다. 저 노무현이 또 될까 했는데 핵문제에 파묻혀 제대로 할 까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금융시장 다 극복했습니다. 노사분규로 우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기사거리 큰

게 없으니까 신문들은 노사분규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만 쓰면 좋겠는데 자꾸 씁니다. 실제 분규 건수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파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목표하는 파업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잘 풀어가려 합니다. 사스 공무원들이 잘 막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제가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운도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꼭 성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권이 이번 5년 동안 뭔가 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 준비 받아들이고 주변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